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50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SWOT로 보는 '비밀은 없다'

여배우와 여성감독이 만나 새로운 여성 이야기를 완성했다. 익숙한 상업영화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문법을 구사했지만 그만큼 또 낯설다. 23일 개봉하는 '비밀은 없다'(제작 영화사 거미)는 등장인물은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까지 온통 베일에 가려진 분위기를 풍긴다. 보는 내내 부지런히 해석하지 않으면 공감하기 쉽지 않다. 영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내기 정치인(김주혁)과 그의 아내(손예진), 행방불명된 중학생 딸(신지훈)에 얽힌 이야기다. 딸이 사라졌는데도 찾은 생각 없이 선거에 몰두하는 남편, 홀로 딸의 행방을 추적하는 아내가 대립하는 가운데 딸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가족은 파국으로 향한다.



오히려 딸의 이야기로 무게중심이 넘어간다. 유기적으로 얽힌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기보다, 따로 떨어진 두 여성이 각각의 운명을 각각의 방식대로 헤쳐 가는 영화로 읽힌다.

STRENGTH(강점)···'전형성' 벗은 새로운 화법

딸을 찾는 엄마가 주인공이지만 흔히 봐온 절절한 모성애를 기대했다면 배신감을 가질 만한 영화다. 딸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엄마의 심리 묘사는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차원'으로 그려진다. 그런 엄마의 선택은 눈을 뜬 절규 대신 붉은 색 립스틱을 칠하거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장례식장에 가는 행위로 묘사된다. 마치 핑기에 사로잡힌 듯하다. 엄마뿐만이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도 '전형성'을 따르지 않는다. 딸의 실종은 아랑곳없이 선거운동에 집중해 결국 당선하는 남편,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딸의 담임(최유화), 딸의 단짝 친구(김소희)까지 온통 수수께끼 같은 인물뿐이다. 누군가는 새로움을, 또 다른 이들은 불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

WEAKNESS(약점)···1년여 후반작업의 여파(?)

지난해 초 촬영을 마친 영화는 1년여 편집 등 후반작업을 거쳤다. 제작진은 완성도를 높이고 영화를 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잘려나간 장면도 있다. 때문에 이야기가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는 '함정'이 생겼다. 영화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한다. 딸을 추적하는 엄마, 그렇게 드러나는 딸의 비밀이 주요 구성. 그러다 중반을 넘기면서

OPPORTUNITY(기회)···손예진의 시작, 손예진의 끝

작품의 완성도와 배우의 연기를 떨어뜨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비밀은 없다'의 손예진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불안한 심리를 광기로 표출하는 '낯선' 모성애를 그처럼 완벽하게 그려낼 30대 여배우는 없다. 그 책임을 손예진은 해냈다. 딸의 비극을 확인한 직후 남편을 향해 악다구니치는 손예진의 표정과 눈빛은 배우가 그 상황과 배역에 얼마나 몰입해 있는지 엿보게 한다. 연기한 지 15년 동안 술한 영화와 드라마에 참여해왔지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낯선 표정이 그에게는 아직도 있다. 손예진은 여전히 관객에게 보여줄 게 많은 배우임을 증명한다.

THREAT(위협)···'친절한 금자씨'의 향기

영화는 궁극적으로 '복수극'이다. 손예진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자신과 딸을 무너뜨린 대상을 향해 처절한 복수를 감행한다. 나야할 것 같은 여성이 그 이미지를 깨부수고 실행하는 복수는 카타르시스를 준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그림자가 짙다. 아닌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작업에 박찬욱 감독이 참여했다. 연출자 이경미 감독은 "박찬욱 감독과 초기 시놉시스를 함께 썼다"며 그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1024@donga.com

■ 새 영화

●인디펜던스데이:리서전스 | 22일 개봉 | 감독 톨랜드 에머리히 | 주연 빌 풀만·리안 햄스워스

1996년 전 세계 관객에게 '충격'에 가까운 비주얼을 선사한 재난 블록버스터가 돌아온다.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과 그에 맞선 이들의 회생을 그린 1편을 잇는 후속편. 20년 전 외계의 침공으로 인류의 절반을 잃은 지구는 재건에 주력한다. 하지만 더 막강한 파괴력으로 무장한 외계인의 침공이 다시 시작되고, 이들은 차원이 다른 공격을 퍼붓는다. 지구는 멸망 위기에 놓인다. '재기'라는 뜻의 부제가 붙은 이번 후속편에는 1편의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참여해 정통성을 잇는다.



●크리미널 | 22일 개봉 | 감독 아리엘 브로맨 | 주연 라이언 레이놀즈

사람의 뇌는 이식될 수 있을까. 최신 뇌 과학에 화려한 액션, 추격전을 버무린 블록버스터다. CIA요원 빌(라이언 레이놀즈)은 대도시를 폐허로 만들려는 테러 조직을 추적하다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에 CIA는 테러를 막을 단서를 지키기 위해 빌의 기억과 능력을 수감 중인 제리코(캐빈 코스트너)의 뇌에 이식한다. 뇌를 공유한 두 인물은 상황을 더 큰 혼돈으로 몰아넣는다. 영화에는 화려한 배우들이 대거 모였다. '원더우먼' 시리즈의 주인공 켈리 카우슬러, 토미 리 존스, 케리 울드만까지 쟁쟁한 배우들이 합심해 완성했다.



뉴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신라면세점, '재입고 알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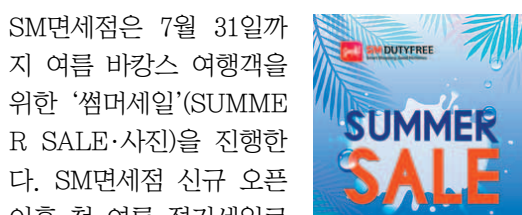
신라면세점(사진)은 면세점업계 처음으로 '재입고 알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품절된 경우 재입고 즉시 알람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재입고 알람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날짜를 설정하면 그 기간 안에 재입고 될 시 고객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신라면세점은 재입고 알람 서비스를 4월 중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고객의 반응이 좋아 본격적으로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또한 인터넷면세점에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보유하고 있는 SNS계정으로 손쉽게 가입하고 로그인 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하이원 대표메뉴 8미' 공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는 21일 컨벤션호텔에서 '하이원 대표메뉴 8미(味)'에 선정된 8가지 메뉴의 시식회(사진)를 진행했다. '하이원 대표메뉴 8미'는 지역 식자재를 중심으로 리조트 식당 7곳에서 개발한 고품질 호두빵, 쥐눈이콩 자장면, 산채 버섯 불고기, 지중해 풍의 구운 문어 파스타, 운암정 명품냉면, 정선 기(氣)찬 왕갈비탕, 산채소 오리 불고기, 강원장 비빔정식 등이다. 3월부터 시장조사, 계획수립, 메뉴개발, 메뉴구성 등 4개월의 과정을 거쳐 선정했고, 7월 품평회와 전포식을 갖고 상품화할 예정이다. 하이원리조트는 지역을 대표할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8미(味) 8락(樂) 8경(境)' 사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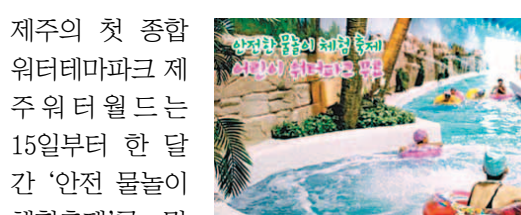
SM면세점, 첫 '썸머 세일'



SM면세점은 7월 31일까지 여름 바캉스 여행객을 위한 '썸머 세일'(SUMMER SALE·사진)을 진행한다. SM면세점 신규 오픈 이후 첫 여름 정기세일로 서울점·인천공항점·온라인면세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코치, 발리, 에트로, 베르사체, 비비안웨스트우드, 모스키노, 마크제이콥스 등 해외 명품과 빅토리아시크릿, 켈빈클라인, 썸소나이트, 라코스테 등 약 50여개 인기 브랜드를 지점 및 브랜드에 따라 최대 75% 할인가격에 만날 수 있다. '신규 브랜드 입점기념 이벤트'로 지방시, 클라란스, 룩시팡, 오리진스, 엘리지베스 아덴 등 서울점 신규 입점 수입 화장품 구매시 구매금액별 다양한 기프트가 증정된다. 또한 SM면세점 서울점 구매시 구매금액·결제수단에 따라 최대 24만원을, 인

천공항점에서는 최대 11만원의 선불카드 추가 증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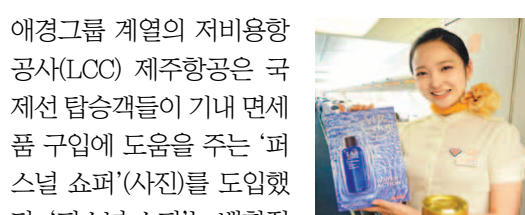
제주위터월드, 어린이 공짜 이벤트



제주의 첫 종합 워터테마파크 제주 위터월드는 15일부터 한 달간 '안전 물놀이 체험축제'를 맞아 어린이 무료 입장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행사기간 동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워터파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가족단위 입장객에 한하며 단체입장은 제외된다. 안전 물놀이 체험축제에서는 수상에서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박탈출체험을 비롯하여 급류 생존 체험, 파도 체험 등 꼭 필요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 2005년 개장한 제주위터월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으며, 1만

4876m²의 면적에 워터파크 시설과 썸머빌, 해수사우나, 야외스파, 푸드코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항공, '퍼스널 쇼퍼' 도입



애경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국제선 탑승객들이 기내 면세품 구입에 도움을 주는 '퍼스널 쇼퍼'(사진)를 도입했다. '퍼스널 쇼퍼'는 백화점 등에서 일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쇼핑도우미 서비스로 제주항공은 '퍼스널 쇼퍼'를 원하는 150여 명의 객실승무원에게 제품정보는 물론 판매 노하우와 응대요령 등을 교육해 연평과 성별 그리고 노선에 맞는 맞춤형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또 기내 면세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료항공권, 뮤지컬 티켓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